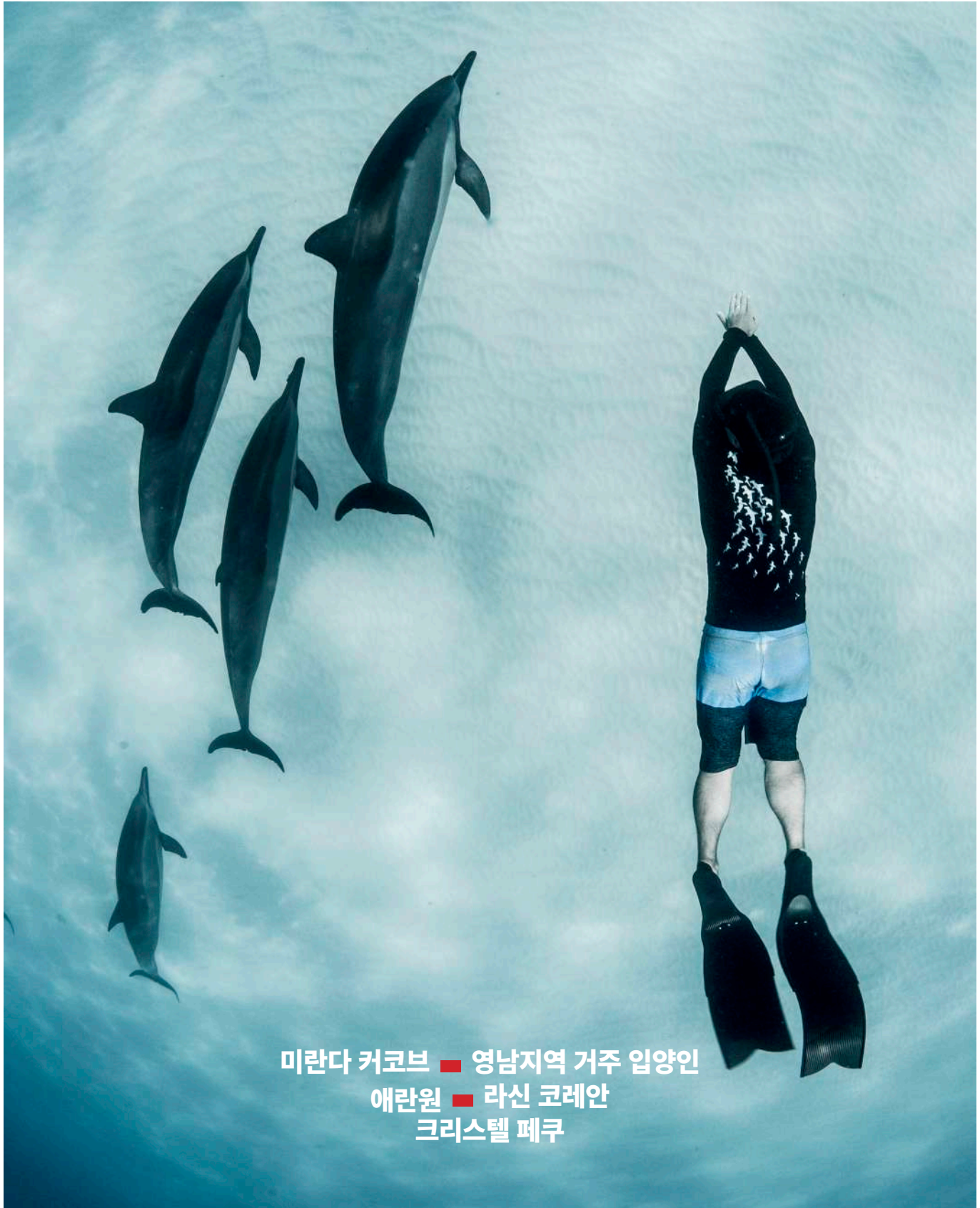


i a m . g o a l . o r . k r
iam

2021년 1월

© Published in Korea by GOAL

**INTERNATIONAL
ADOPTEE
MAGAZINE**



미란다 커코브 ■ 영남지역 거주 입양인
애란원 ■ 라신 코레안
크리스텔 페쿠

EDITION #3
2021년 1월

- 3 **해외입양인연대 소식**
우리의 2020년: 코로나와 조직변화의 해
- 4 **국내거주 해외입양인 인터뷰**
미란다 커코브 (MIRANDA KERKHOVE)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가 다다르고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 8 **한국생활 & 문화**
영남지역 거주 입양인
기차 타고 3시간 부산과 양산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입양인과의 만남
- 11 **국내기관**
애란원
애란한가족네트워크
- 16 **해외기관**
라신 코레안 (RACINES CORÉENNES)
프랑스 파리
- 18 **해외입양인**
크리스텔 페쿠 (CHRISTELLE PÉCOUT)
파리에 사는 프랑스의 입양인
- 19 **표지 아티스트**
리아 바렛 (LIA BARRETT)

iam INTERNATIONAL
ADOPTEE
MAGAZINE

■ 편집 에디터
Tom McCarthy

■ 콘텐츠 에디터
Kara Rickmers

■ 번역
[한국어]
백윤진
유현지
김예슬
김영주
남요안나
장윤석

[불어]
박아름
박현춘
Leslie Maes
Christelle Pécout
Amandine Poupin

■ 레이아웃 & 디자인
Didier Yoo
Kara Rickmers

■ 사진
G.O.A.'L
Lia Barrett
Miranda Kerkhove
Jessye Jin Joo Hale
Matt Lavier
Christelle Pécout.

■ 연락처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6호

이메일
media@goal.or.kr

웹사이트
www.iam.goal.or.kr
www.goal.or.kr

본 간행물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해외입양인연대의 기금으로 제작되었으며
전세계 입양인 단체에 무료 배포됩니다.

우리의 2020년

코로나와 조직변화의 해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계획했던 프로그램을 대폭 수정하여 운영해야 했기에 여느 해와는 많이 다른 한 해였습니다. 저희의 주요 프로그램은 각종 행사와 모임인데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입양인들을 위한 후원금 모금행사를 포함한 여러 행사들을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는 매년 한국을 방문하던 입양인의 수에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험, 한국어 학습, 친생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던 입양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2020년 전세계에서 방문이나 거주 목적으로 한국에 온 입양인의 수는 50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전에는 매년 천여 명의 입양인이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IKAA와 같은 대규모 행사가 열리는 해는 그 수가 늘어남).

코로나가 국내입양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복지 관련 지원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국내거주 한인 입양인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50%가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못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정규직이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2018년 대다수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2021년 현재 국민건강보험료는 월 131,790원 (약 118 달러)인데 이는 고용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보험료는 계속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체납 발생시 정부는 해당 가입자의 계좌를 동결시킬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비자 만료 시 갱신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적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주고자 저희 해외입양인연대는 생필품이 담긴 코로나 지원 구호품 박스를 국내 거주 입양인 170여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입양인 100명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전달했습니다. 2021년에도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여러 복지 프로그램들에 긴밀하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추방입양인과 위기입양인을 포함하는 보호대상 입양인에게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국내 거주 보호대상 입양인들을 지원 및 관리하는 일에 입양인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지, 예상되는 여러 시행착오 등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같은 입양인인 저희들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려고 하는 입양인들을 지원하고 필요 시 복지를 제공하는 등 지속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저희 해외입양인연대는 이전보다 더욱 범위를 넓혀갈 것입니다. 저희의 활동과 새로운 소식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시오!

■ 해외입양인연대 사무총장 아이리크 하계네스



미란다 커코브

MIRANDA KERKHOVE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가 다다르고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한국에 돌아와서 살게 된 전 세계
입양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입양 됐다는 사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한국에
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란다의 새 삶은 그녀가 8개월이 되던 때 지구 반대
편의 네덜란드로 건너가 네덜란드 부모, 그리고 남동
생과 살게 되면서 시작됐다. 그녀는 자라면서 다른 동
양인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사실, 유일하게
그녀가 함께 지낸 동양인들은 역시 한국에서 입양된
남동생과 사촌뿐이었다. 함께 자랐지만 그들은 입양이
나 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사실 그녀는 30
대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았다.

처음 그녀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친구에게서 영어로 된
한국 요리책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받
으면서였다. “인터넷에서 한국 단어의 발음을 검색하
고, 음식에 어떤 재료가 사용되는지를 검색하며 흥미
를 느꼈어요.” 이 같은 관심은 그녀가 2007년 처음으
로 자신이 태어난 나라를 방문하도록 영감을 줬다. 한
국의 여행사에서 일하는 네덜란드 입양인의 안내를

받으며 다니던 여행에서 마주친 풍경과 음식에 호감
을 느꼈다. 다른 입양인들과 어울려 본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함께 여행한 20여 명 중 10명이 입양인이었
다. “저는 다른 입양인들과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비슷한 점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은 2011
년 여름 서강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한국어를 공부
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받음과 동시에 그녀를 다시 한
국으로 이끌었다.

미란다는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가 매우 마음에 들었
고, 2012년 한국으로 이주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와
서 살게 되니 큰 충격을 받았다. “언어 수업을 들을 때
보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해하게 하
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서강대학교에서 레벨 2의
한국어 수업을 이미 마쳤지만, 그녀는 국립국제교육원
(NIIED) 대학원 장학금을 신청해 안정적인 수입이 있
는 가운데 학위를 따기로 했다. 영어와 교육 관련 박사
과정에 지원했고, 필수 과목인 한국어 수업을 가장 잘
가르친다고 생각한 서강대를 선택했다.

서강대의 박사 과정에 지원한 후 그 곳에서 언어 수업도 듣게 될 줄 알았지만, 정부가 NIIED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따라 다른 곳에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놀랐다. 당황스럽게도 전주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저는 서강대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을 줄 알고 서울에 집을 구해놨어요; 결국엔 집 두 곳에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서강대학교에 입학한 후 그녀는 다시 한번 공부에 대한 열정을 확인했고, 특히 문학과 관련해 이야기할 때 즐거움을 느꼈다. 미란다는 한국어 프로그램을 성공리에 마쳤지만, 대다수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됐기 때문에 힘들게 배운 한국어는 두 개의 필수과목 수업에서 밖에 쓸 기회가 없었다.

박사 과정을 마치는 데 6년이 걸렸고 2018년에 학위를 받았다. 졸업 후에 열심히 노력한 자신에게 꼭 필요한 “갭 이어(Gap Year)”를 보낼 생각이었다. 하지만 미란다는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InKAS)에서 운영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박사 과정 중 파트 타임으로 하기 시작한 일이었다. 전공을 활용하기 위해 그녀는 많은 한국인 부모들이 방학 기간 자녀를 보내는 여름과 겨울 영어 캠프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친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적용하는 데 흥미를 느끼지만 여전히 주중에는 대부분 모국어인 네덜란드어를 사용하며 보낸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미란다는 영어 책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흥미를 느꼈다. 시간이 흐른 지금, 몇 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취미로 돈을 벌고 있다. 프리랜서 자막 번역가로서 네덜란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를 번역한다. 이 일 덕분에 미란다는 한국에서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며 유연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자신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직업이기도 하다. “저는 언어 관련 일 하는 걸 즐기지만, 창작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직접 글을 쓰지는 않아요. 언어 관련 일을 하는 건 즐겁습니다. 같은 말을 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다양한 프리랜서 경력이 있는 미란다는 한국행은 간단하고, 또 도움이 됐다. 자막 작업은 안정적인 인터넷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녀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그녀는 또 8개월 이상 해외에 거주하는 네덜란드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녀는 번역 회사를 설립하며 마주한 재정 관련 사항들에 매우 만족했다.

“한국의 세율은 네덜란드보다 매우 낮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당연히 인생에 간단한 건 없다. 자신을 일인 기업으로 등록한 후 그녀는 한국의 법에 따라 자신의 임금이 한국의 은행으로 입금돼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미란다는 자신의 고객들에게 송장을 분기별로 보내기로 했다. 그녀는 또 자신을 일인 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다양한 국내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에서는 모든 소득을 신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임대인들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모든 임대소득을 다 신고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미란다는 자신이 임대소득 신고를 하는 집에 살고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의해 발각되면 과세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덜 복잡한 건 오피스텔인데, 이는 사무실로도 쓰이는 스튜디오나 로프트같은 공간을 말한다 (G.O.A.’L.의 사무실도 이와 같은 곳이다). 하지만 이처럼 두 가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오피스텔의 특성상 방 하나짜리 아파트보다 월세가 비싼 경우가 많다. “한국인들에게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 힘든데, 한국인들이 예외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 집 주인들은 그저 그게 온전한 주거용 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녀는 올바른 부동산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며 자신의 상황을 이해시켜야 한다. “경리단에 있는 제 집을, 처음에 그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중에 살기 시작한 이후엔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우 어려워요.” 그녀는 한국에 사는 9년 동안 9곳의 집에 살았는데, 그녀 인생에서 이렇게 자주 집을 옮긴 적은 없었다.



미란다는 서강대학교에서 영어교육 박사학위를 받았다.

COVID-19 이전 미란다는 꽤나 평범한 삶을 살았다. 프리랜서로서 그녀는 주중에만 일하며 일반적인 업무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가끔씩만 주말에 일했다. “네덜란드는 일광 절약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보다 7-8시간이 늦기 때문에 새벽 1시나 2시까지 일하거나 아니면 그 시간까지 일감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일이 끝난 후 친구들을 만나거나 다른 입양인들과 다양한 사고 행사에 참석한다. “외국인들과 시간을 보낼 때는 항상 비슷합니다... 먹고 마시고, 또 마시고, 노래방에 가고 그리고 뭔가를 더 먹고 집에 갑니다.”

박사 학위 취득 이후에도 그녀의 호기심은 멈추지 않았다. 미란다는 발레와 요가 수업에 참여하고, 이탈리아어를 배우고 한국어 수업 시간을 더 늘렸으며 다도 수업에 참가하는 등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계속 확장했다. “작년에 저는 기타를 연주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기타를 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 국내거주 해외입양인 인터뷰

노력하고 있어요.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즐거워요. 저의 이웃들도 좋아하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낮에만 연습해요. 집 방음은 괜찮지만 뒷집을 위해서요. 천장이 그렇게 두껍지 않은 것 같아요.”



미란다가 한국 전통 다도 체험을 하고 있다.

발레와 요가 수업은 외국인이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녀는 정통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다도 수업을 듣기로 했다. “당시 생각으로 언어 수업을 듣는 것보다 한국에서 다양한 주제의 수업을 듣는 게 한국어를 배우기에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습 부분은 매우 재미있었지만, 한 해가 지나고 이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어졌어요.” 그녀는 통잎차와 가루 녹차를 한국 정통 방식으로 즐기는 방법을 배웠다. “수업 내용 중 반 이상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들을 지켜보고 강사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족했기 때문에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학기는 문화 수업보다는 대학교 강의에 보다 가까웠는데, 수강생들의 질문이나 그들의 지식을 넓히는 데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강사들의 수업을 매주 네 다섯 시간씩 들어야 했기 때문이다. 익숙하지 않은 한자와 전문 용어로 가득한 파워포인트 속에서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으며, 수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했다. “제 인생에서 아마도 한 번도 쓰지 않을 전문 용어들을 많이 배웠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수 많은 다른 입양인들처럼, 친생부모를 찾고 싶은 호기심을 피하기는 힘들었다. “친생부모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도 했고 KBS 방송에도 나갔지만, 정말 꼭 찾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없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한국 이름이 두 개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처음 그녀가 지냈던 부산의 보육원에서는 입양 관련 서류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입양 기관인 한국사회봉사회에 연락했고, 그들은 아동권리보장원에 연락해 미란다의 서류를 받았는지 물었다. 이는 더 이상 입양을 진행하지 않는 보육원들이 거치는 과정이다. “그들이 어떤 파일에 속해있지 않거나

하는 서류를 발견하면 그게 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때까지 그녀는 자신의 한국 이름이 황혜정인 줄 알았다.

충격적이게도, 그녀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사과 이메일을 받았다; 그들의 기록에 따르면 “황혜정”은 그의 할아버지가 고아원에서 데려갔다는 것이었다. 보장원은 그 여아의 이름과 당시 보육원에 머물렀던 다른 여아들의 생일을 비교하기 시작했고, 이름 하나를 찾아냈다: 김지영. “이런 연역적 방법이 그 아이가 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원래 저라고 여겨졌던 그 아이가 아니라면, 저는 한국 어디에서든 왔을 수도 있잖아요, 누가 아나요?” 미란다는 이 모든 혼란이 우연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들이 어떻게든 의도한 것 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입양인들이 가능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모든 이야기가 서로 다르고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입양을 위해] 사용된 방식에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미란다는 입양에 대한 생각과 입양기록에 대한 염려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저는 극단적인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활동가는 될 수 없어요”라고 믿는다. 그녀는 입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는 걸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한다. 당연한 대안으로 보이는 이기는 하지만, 이에 문화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낙태, 학교에서의 성교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이다.



“결혼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지만... 왜 그것이 문제가 돼야 하나요?” 그녀는 한국 사회가 천천히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그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아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죠.” 그녀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언제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입양을 멈추는 것은 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양이 그 부모보다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또 한국 사회에서의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그녀는 한국인 자녀를 입양한 자신의 지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한국인들 사이에서 입양에 대한 문화적 인식 때문에, 그 아이는 아직도 자신이 입양된 줄 모른다고 했다.

“저는 한국을 좋아하는 마음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순간에 일을 바꾼다거나, 만든다거나, 아니면 물어보기 전까지는 일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점에 대해 아직도 적응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저는, 이와는 정 반대라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전 인터뷰 주인공이었던 코리가 지적한 문화적 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한국 거주를 계획하는 입양인들에게 그녀는 그들이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많지 않은, 그것을 위해 미리 준비를 하라고 조언했다. “많은 이들은 특별한 계획 없이 이 곳에 남게 돼요; 그리고 고통 받죠.” 그녀는 목적 없이 사람들과 만나는 사고 모임이 즐거웠지만, COVID-19 이후 이 같은 시간은 불가능하게 됐다. “외국에 살 땐 친구나 가족과 같은 느낌을 주는 모임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소속감을 주는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입양인들처럼 (IAM의 첫 인터뷰 주인공이었던 기욤 듀레를 포함해) 그녀는 한국인들과 가까운 친구로 지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미란다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녀를 많이 도와준 한국인 친구와 가까이 지냈다. 하지만, 미란단의 한국어가 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의 조카인 남자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다 언쟁이 있었다. 그녀의 친구는 남자들은 항상 여아들보다 더 활발하다고 말했다. 미란다는 성별 고정관념에 휩싸이기 보단, 그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놔두는 지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다. 슬프게도 미란단과 친구는 이후에 만나지 않았다. “저는 저에게 좋은 일, 나쁜 일을 모두 터놓고 저를 믿고, 저도 믿을 수 있는 친구와 가까워집니다.” 그녀는 또 아직까지도 한국의 위계질서가 불편하다고 말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모임에서 연장자가 밥 값, 커피 값이나 술 값을 모두 내야 한다는 점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그녀가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한 깊이를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미란다는 정기적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특히 장례식 등의 가족 행사로의 방문은 더 더욱 계획하지 않았다. “슬프게 들리죠.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가 됐다는 것, 그래서 2년이나 3년 주기로 매번 네덜란드를 방문했어요.” 그녀는 이런 식으로 집에 가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서 천천히 즐기기도 사람들과 빠르게 만나고 돌아와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계획대로 일주일 내내 방문

할 수 있다면 더 자주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자신이 집에 자주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프리랜서로서 일하는 건, 매일 일하지 않으면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미란단의 네덜란드 엄마가 그녀를 보러 한국을 방문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 “문화적 충돌이었죠. 엄마는 이 곳 음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문화에도 관심이 없었죠. 한국적인 것 그 무엇도 구입하지도 않아서, 엄마가 여기 오셨을 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거 같아요.” 다행히도 그 때 방문의 목적이 미란다가 결혼하는 걸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미란다가 결혼 준비를 하는 동안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줄 사람이 충분했다. 미란다는 결혼을 했었고, 이혼을 했지만, 결혼에 대해 믿지 않는다. “동거를 하는 것이 결혼과 같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살면서 이런 생각이 꽤나 네덜란드식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 많은 비한국인 친구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그것이 매우 정상적이기 때문이죠.”



양평 용문산 정상에 선 미란다

미란다는 한국에 이렇게 오래 머무를 생각이 없었다. 템플스테이도 해봤고 국내 방방곡곡을 여행했다. 그녀는 심지어 문을 닫기 전 북한의 금강산 리조트도 방문했다. 모든 대도시를 방문했고, 자신이 있었던 보육원도 방문했으며 DMZ도 다녀왔다. 그녀는 한국의 모든 유명한 곳들을 방문하면 다 비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고 말했다. “저는 산을 좋아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산을 가기를 추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 많은 한국인들의 무리에 끼어서 다니게 되니까요.” 그녀는 여름이나 봄의 제주도도 좋아하는데, 섬 전체에서 굴 향이 나기 때문이다. “아직도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던 굴 향을 잊을 수 없어요. 몇 개월에 한번씩 문득 내가 이제 뭔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이내 잊어버려요. 저는 COVID-19 이후 집에만 있었을 때 때문에 네덜란드로 돌아가야 하는 생각도 들지만, 모르죠. 그저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 거주 입양인

기차 타고 3시간 부산과 양산으로:
서울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입양인과의 만남



*전문은 iam.goal.or.kr에 있습니다

제시 진주 해일 미국인 입양인, 연구 과학자

여러분은 아마 활기 넘치는 해변, 고층 건물, 그리고 대도시 생활로 잘 알려진 부산에 대해 들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산은 서울에 이어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하지만 저와 비슷하시다면 부산에서 북쪽으로 불과 18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지만 아직도 외딴 농촌 취급을 받는 양산에 대해서는 들어 보신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양산은 지난 10여 년간 놀라운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양산에는 이제 아파트와 상가뿐만 아니라 다른 기반 시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뜰 때마다 새로운 카페, 식당, 그리고 술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양산에 정착했을까요?

저는 부산대학교 부산캠퍼스에서 어학연수를 한 후, 암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생명공학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의 주요 연구실과 사무실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병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저는 입사 제의를 받았을 때, 회사의 위치가 어학연수 중에 한 번 가봤던 ‘양산’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향이나 부산에서의 신나는 삶을 그리워하기 쉽지만, 저는 이 도시와 이 안에서 제가 찾은 제 자리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걸어서 출근할 때 오른쪽을 보면 멋진 오봉산이 있습니다. 저는 오봉산에서 등

산을 하면서 내면을 탐구했고, 흥미로운 인물들을 만났습니다. 산등성이를 따라 눈을 옮기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나무 한 그루가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있습니다. 제 왼쪽에는 오봉산만큼은 아름답지 않지만 거대한 아파트 숲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환상적인 자전거 도로를 자랑하는 강과 개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까지 갈 수 있습니다! 양산은 야외에서 놀기 좋은 곳입니다.



양산은 시골 농촌마을이라는 기존 명성에 비해 사랑스럽고 생동감이 넘치지만, 젊은 가정과 아파트 생활을 중심으로 시설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지하철역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쇼핑을 하거나, 새로운 관광지를 보거나, 해변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면, 저는 가까운 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2달러 미만의 돈으로 대략 한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역 중 하나는 암남 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날씨가

좋으면 어부들과 유람선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공룡도 있습니다! 전망과 사진 외에도 제 “암벽등반 아버지”인 동일님이 소개해 주신 바위 절벽이 바다와 만나는 평화로운 암벽등반대가 있습니다. 제 “암벽등반 아버지,” 친부모님, 그리고 뉴질랜드에서 온 영혼의 단짝 말고도, 저는 여기 부산의 한국 입양인 모임에서 훨씬 더 많은 가족을 찾았습니다. 저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유행하기 전에 메건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한국계 입양인으로부터 이 모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저희는 작은 그룹이지만, 천천히 새로운 멤버들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기적으로 자주 만나지는 않지만, 저는 이 모임에서 좋은 친구들과 조력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대부분 미국인이고, 일부는 저처럼 여기서 몇 년 살았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에 온 지 10년 혹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모임에는 현재 총 12명이 있고, 부산에 살다가 이사를 간 소수의 명예 회원들도 있습니다. 작은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있는 사람들과 정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삶의 아주 깊은 면들까지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는 입양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겪는 독특한 어려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엄마가 제 생부를 처음 만난 곳도 이 모임의 멤버 중 한 명의 아파트였습니다.

페이스북 아시아 입양아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인천에서 놀러 왔었습니다. 얼마 전 모임에 합류한 김해 출신 사진기자님을 만나 햇볕 아래서 애틀랜타 총기 난사 사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제가 방금 만난 사람과 그런 대화에 쉽게 뛰어 들 수 없었지만, 이 시기에 한국계 입양인으로서 겪는 공통적인 어려움은 그러한 사회적 장벽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이는 입양아로서의 독특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GOAL에서 주최한 제주도 여행을 가고서야 서울에 얼마나 많은 입양아들이 살고 있는지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이미 부산에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두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GOA'L과 큰 입양인 커뮤니티와 함께 일하고 싶은 유혹이 계속되었지만, 현재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국에 와서 깜짝 놀랄 일이 많았는데, 이 중에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입양인들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고,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성인 입양인들을 만날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양된다는 것은 많은 도전을 수반한다는 것을 뜻하지만, 그것들을 극복했을 때 따라오는 보상은 대단합니다. 저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경험, 그리고 경청하는 성향을 통해 연결되는 독특한 공동체의 일부입니다. 제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줬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 여기서 는 읽어준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맷 라비에르 미국인 입양인, PADI 스쿠버 다이빙 강사

미국 오리건 주 포틀랜드의 어떤 가정으로 입양되었을 때,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생일이 4월 18일이라고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35년이 지난 후에 마침내 한국으로 건너가 친생가족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확실히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제 생일, 한국 이름 (경찰서 계단에서 저를 발견한 경찰이 지어준 이름), 그리고 제가 부산 출신이라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2016년 2월 5일 서울에 도착했을 때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친생가족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데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G.O.A.L.과 함께 제가 누구이고 어떻게 지내며 어떻게 자랐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진단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양되었던 가정에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잔인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친생가족을 찾으려는 욕구가 컸습니다. 서울에 있는 홀트를 방문했을 때, 저는 제 입양 기록의 절반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홀트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홀트 코리아를 방문한 후, 저는 부산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G.O.A.L.이 섭외해 준 대학생을 만나 부산을 구경하고, 제가 버려졌던 경찰서, 마지막 건강검진을 한 병원, 그리고 어린 시절 머물던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보육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새로운 사실들에 눈을 떴고, 질문이 산더미처럼 불어났습니다. 보육원 원장은 제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경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이 없었다면 당시 고아원 원장의 성을 받았을 텐데 제 한국 성이 달랐기 때문에 제 한국 이름이 사실 제 본명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제 생일도 역시 틀렸습니다. 저는 사실 4월 17일에 한국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4월 18일에 고아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는 제 생일이 아니라 고아원에서 제 서류가 만들어진 날짜였습니다. 고아원에 남아있던 병원 기록과 쪽지에는 제 생일이 2월 5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

니다. 저는 ‘와, 한국 생일에 내가 한국에 돌아왔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을 얻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잘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 두 곳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을 정말 즐겁습니다. 비록 미국과 비교해서 보수가 낮은 듯하지만, 부산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약간의 돈을 저축하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식재료도 저렴하고 식당에서 사 먹는 것도 저렴해서 외식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해변과 물을 좋아하기도 하고, 부산에 살기 때문에 거의 항상 어떤 방법으로도 해변에 있습니다. 저는 PADI 스쿠버다이빙 강사이기도 하며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동 냉정로6번길 14에 위치하고 있는 씨월드 다이브 센터 (Seaworld Dive Center, 페이스북에서 “부산 스쿠버”로 검색 가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영어로 된 강좌와 수업을 제공하는 다이빙 센터입니다.

안타깝게도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잠수부들 때문에 부산의 많은 오픈워터 다이빙 훈련지에 해양 생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생생물 보호구역인데 사람들이 작

살 낚시를 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제 기분이 울적해집니다. 경찰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벌금을 매기는 날이면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경찰이 좀 더 자주 순찰해 줬으면 좋겠지만 아마 이 지역에 배정할 만한 인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 최고의 스쿠버다이빙 장소는 부산 외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쿠버 다이빙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자격증을 따고 싶으시다면 포항, 울산, 영덕, 양양처럼 물고기가 떼 지어 헤엄쳐 지나가는 곳으로 모셔 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몇 가지 장소를 고르자면 탐험할 수 있는 다양한 난파선들이 있고 거대한 게 조각상 주변을 수영할 수도 있습니다. 5월에서 11월까지의 물이 따뜻하지만, 12월부터 4월까지는 건식 잠수복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가르치지 않을 때는 한국에 있는 다른 입양인들과 어울리려고 노력합니다. 현재 10-15명 정도의 입양인들이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고, 여전히 부산에서의 삶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한인 입양인들은 미군, 전문 사진작가, 기술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자 등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개인의 방대한 경험과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우정이 생겨났습니다. 저희가 어디에서 왔는지와 각자가 경험한 과거는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간에 저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개척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을 슈바이처의 명언과 함께 마치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글을 읽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성공은 행복의 열쇠가 아니다. 행복이 성공의 열쇠인 것이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다.”

-알버트 슈바이처





애란원

나 래 대 안 학 교

애란원

애란원 강영실 원장님과 애란원 생활인 하은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애란원이 미혼모들을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해왔으며 이러한 지원을 통해 미혼모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살펴보았다.

애란원은 미혼모의 자녀 양육 지원에 헌신해 온 혁신적인 기관이다. 미혼모의 자녀는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이 낫다고 여기던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생명존중, 모성보호, 가족 보존이라는 애란원의 미션이 많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애란원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현재 전국적으로 애란원과 같은 미혼모시설 및 미혼모자시설이 60여개로 늘어났다.

애란원은 1960년 엘레노어 밴리럽(Eleanor Vanliper) 선교사가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설립하였다. 은혜의 집은 자립이 어려운 젊은 여성들의 자활 및 보호를 위해 설립되었다. 당시 한국은 6.25전쟁 후 여전히 회복 중이었고 전후 상황은 젊은 여성들을 위태로운 상황으로 몰고 가기도 했다. 청소년 가출, 가정 폭력, 이른 임신 등으로 미혼모 수가 증가했다. 따라서 1973년 엘레노어 선교사는 미혼모 지원 사업에 전념하기로 했다. “엘레노어 선교사는 해외로 자신의 아이를 보낼 수 밖에 없는 미혼모들의 삶이 얼마나 우울하고 슬픈 지를 목격했죠.”라고 강영실 원장은 말한다. 은혜의 집은 1977년 애란원으로 시설명을 바꾸었는데 이는 “사랑을 심는다”는 뜻을 지닌 엘레노어 선교사의 한국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현재 애란원은 “미혼모를 위한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는 애란한가족네트워크의 핵심 업무이다. 7개의 시설에서 전체 임신 기간뿐 아니라 출산 후에도 미혼모를 지원한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정부 지원을 받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렸다. 처음엔 국가에

서 미혼모들이 6개월만 시설에 머물도록 했다. 강영실 원장은 “임신기간은 10개월 이잖아요. 아이 낳자마자 그냥 나가는 식으로 되니까 이분들이 도저히 아기를 양육할 수 없는 거죠.” 라고 지적한다. 강영실 원장은 대한사회복지회에서 일을 시작했고 90년도부터는 미혼모상담과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강원장은 많은 미혼모들이 아이를 직접 키우기 원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으나 입양기관에서는 쉽지 않았다.

이에 강원장은 미혼모의 아이 양육을 돕기 위해 애란원으로 직장을 옮겼고 당시 애란원의 원장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들을 향한 시선은 곱지 않았다. 강영실 원장은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는 미혼모들이 애를 키우는 건 힘들고 그럼 인생이 불행해지니까 아기는 더 좋은 집에 입양 보내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말한다. 또한 당시 아버지 없이 키워진 아이들에 대해서도 사회적 편견이 심했기 때문에 한국에서 눈치 보며 키우느니 그냥 입양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엄마들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원장이 애란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애란원에서는 미혼모의 자녀 양육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었다. 분유나 기저귀와 같은 기본 생필품을 위한 돈을 모았다. 그러다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기

■ 국내기관

시작했다. 이를 통해 미혼모들이 1-2년간 머물면서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집을 하나 월세로 구할 수 있었다. 2000년에 이 시설이 생기면서 국내에서 최초로 양육하는 미혼모들을 돕는 곳이 있다는 소문이 나서 전국에서 미혼모들이 몰려와서 뿔뿔하게 끼어서 잘 정도로 많은 엄마들이 있었다.

애란원이 아동 양육을 지원했기 때문에 많은 미혼모들이 직업교육을 이수하고 직업을 구하고 아이를 양육할 수 있었다. 양육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혼모들이 자신감과 끈기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왔다. 강원장은 국가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 시설이 생기고 2년 후 세미나를 개최하여 자립해서 취업하고 성공한 미혼모들이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원장에 의하면 제 주도에서 아기를 업고 온 엄마도 있었다고 한다. 미혼모들은 이 자리에서 아이가 뱃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질 뻔 했고 또는 입양될 뻔 했으나 애란원이 도와주어 아이를 양육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살고 있다고 울면서 이야기했다.



나래대안학교에서 미혼모들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이어간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서울시 공무원과 국회의원이 양육하는 미혼모들을 위해 집을 마련해주겠다고 했다. 이 세미나 이후 정부는 미혼모와 미혼모 자녀 복지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 정부 지원으로 현재의 애란원 건물이 지어질 수 있었다.

4층 건물인 애란원 본부는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혼모들이 임신기간부터 출산 후 6개월까지 지낼 수 있는 장소이다. 이 곳에서 태교, 산후조리, 아기 장래 상담, 미혼모의 미래를 위한 직업 교육까지 이루어진다. 나이가 어린 미혼모들은 본부 내에 위치한 미혼모를 위한 대안 학교인 나래대안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마칠 수 있다. 강원장은 “일반 학교와 똑같이 선생님들이 와서 수업을 하시고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받을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한다.

2000년부터는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됐다. 요즘 애란원은 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위기 임산부를 지원 하고 있다. “여기 오는 위기 임산부의 약 70%는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을 많이 겪은 분들이 많아요”. 애란원 생활인 하은(가명)씨는 애란원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았다. 하은씨는 대구에서 할머니와 함께 자랐는데 중학교부터는 혼자 살게 되었다.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미혼모 언니가 대전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갔지만 나중에 그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갈 곳이 없었다. 그 당시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곳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여성 긴급전화 1366에 전화를 했더니 애란원을 소개해 주었다고 한다.

처음에 애란원에 왔을 때 하은씨는 그저 눈물뿐이었다. “미혼모 시설이라는 말만 들어도 내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다시 눈물을 흘렸다. 앞서 언급한 2002년도 세미나에 참석하였던 미혼모들도 자신들을 향한 당시 한국 사회의 심각한 편견을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표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애란원 본부 4층 건물



미혼모 생활인 숙소 바깥 복도에 늘어선 유모차

출했었다. “처음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이 쓰였어요..... 이 건물로 들어오는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라고 하은씨는 애란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되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러나 하은씨는 애란원이 안전한 곳이라는 것을 금세 알게 되었다.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다른 미혼모들과 유대감을 느끼고 애란원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저는 이제 여기 오래 산 편에 속하는데 [처음에 애란원에 도착했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씩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을 했어요. 더 이상 울지 않게 되었어요..” 하은씨는 애란원의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그 중 부모 교육과 직업 교육뿐 아니라 요가 수업에도 참여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애란원의 네트워크는 미혼모들이 자립할 수 있고 퇴소 이후의 삶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은씨는 이곳에서 스스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다고 한다. “저는 단 한번도 아이를 입양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지 걱정이 많이 되고 두려웠다고 한다. “다른 엄마들로부터 애란원 2차시설에서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동안 양육을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은씨는 다른 엄마들과 아기 옷을 사러 나갔을 때가 기억난다고 한다. 점원이 “선물할 옷 보시는 건가요?” 하며 물었을 때 엄마들이 당당하게 “아니요. 저희는 미혼모예요”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혼자 아니라 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은씨는 지금 다른 엄마들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아직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느껴보지 못했지만 “얼마나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애란원에서 저희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

요”. 하은씨는 초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 건물을 드나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지에 대해 걱정했지만 개의치 않는 다른 엄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없어졌다고 한다. 그래도 아직 딸과 함께 밖에 혼자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

애란원은 미혼모들이 아기 장래에 대해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저희는 아동 중심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라고 강원장은 말한다. 애란원은 엄마들과 상담할 때, “아동입장에서는 친부모가 양육하는 게 첫번째이고, 둘째가 국내입양, 해외입양, 마지막이 시설 이런 순서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해요.”라고 조언한다. 따라서 애란원은 그곳에서 거주하는 생활인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만나거나 국내 또는 해외 입양을 보낸 미혼모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을 초대하여 해외에서 자랐던 입양인의 경험을 듣기도 한다. 입양을 고려하는 미혼모가 있다면, 민족 정체성 확립이 어려운 해외 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을 추천한다.

애란원은 입양을 추천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엄마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을 인정한다.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원, 다른 사람들의 경험 이야기, 장단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떠한 결정을 내리던 애란원은 엄마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



생활인들에게 제공되는 하루 세번의 식사 및 간식은 전문영양사가 식단을 짜고 준비한다.

애란원에는 7개의 시설이 있는데 그 중 애란세움터와 애란모자의집은 애란원에서 퇴소한 뒤 미혼모들이 생활하는 곳이다. 애란모자의집은 미혼모들의 자립과 육아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곳으로 미혼모들이 아이와 함께 지낸다. 여기서 직업 교육과 구직 활동 지원은 물론이고 육아와 그 외 다른 교육을 수업



각 층에 위치한 작은 주방에는 분유를 탈 수 있도록 정수기 및 컵세척기도 비치되어 있다.

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 하은씨는 “이러한 2차시설의 도움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라고 말한다.

애란세움터는 입양을 결정한 미혼모들을 위한 시설이다. 이 곳에서는 직업교육과 구직 활동 지원과 함께 애도 상담도 제공한다. 강원장은 “2000년 이전에는 대략 80-90%의 미혼모들은 입양을 선택했어요. 아무리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도 직업도 없고 집도 없었기 때문에 미혼모들 입양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애란원과 같이 미혼모를 위한 시설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면서 양육하는 비율이 80%까지 증가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어린 엄마들이 많아지고 정신적 심리적으로 어려워져 치료받거나 지적 장애를 지닌 엄마들이 늘어나면서 현재는 양육하는 엄마들의 비율이 60-70%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애란원은 현재 미혼모의 복지와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정의하는 ‘미혼모’라는 개념을 바꾸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 생각에는 미혼이라는 글자를 떼야 된다고 봐요.” 라고 강원장은 말한다. 미혼모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결혼 한 지 3개월만에 이혼하게 된 20대 초반의 임신 부나 매우 빈곤한 상황에 있는 기혼 임신부 등이다. 안타깝게도 기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국가가 알았으면 하는 사실은 입양이나 아동학대로 시설에 가야하는 아이들이 발생하는 상황은 모두 위기임신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즉, 위기임신은 미혼모만 겪는 것이 아니다. 강원장은 미혼모시설의 미혼이라는 글자를 떼고 위기 임신한 여성 누구나 들어

오는 시설로 운영하고 싶다고 말한다. “위기 임신 상황에서 여성들을 충분히 도와주어야 아이 양육 비율이 높아지고 아동 복리도 신장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원장은 애란원의 지원을 여성들에게만 국한 시키고 싶지 않다고 한다.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들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런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저희도 아버지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을 운영하려면 [아버지와 관련된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남성 직원들이 필요 할 것 같아요”.

2000년에 미혼모의 양육에 국가가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현재는 기혼이나 외국인들의 위기임신에 대해 국가가 아직 관심이 없다고 한다. “이분들은 이전에 미혼모가 아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버리고 있거든요. 위기 임신 상황의 여성들을 돌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에 강원장은 애란원의 지원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은씨의 딸은 이제 6개월로 애란모자의집으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애란원을 떠나도 갈 곳이 있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안심이 돼요.” 하은씨는 간호조무사와 컴퓨터 자격증을 취득해서 병원에서 일할 계획을 하고 있다. “저는 산에 가는 것을 좋아해요..... 등산하면서 시간 보내는게 좋아요”. 딸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할 시간이 생겼다고 한다.

애란원에서 하은씨는 아이를 입양보내기로 결정한 어린 엄마들을 종종 본다. “그 엄마들은 굉장히 어리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임신하게 되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어요. 입양을 결정해서 보내기는 하는데 굉장히 속상해하면서 보내거든요.” 하은씨는 그 결정이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하며 과거에 해외로 입양을 보냈던 엄마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말한다.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보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다고 한다. 애란원은 입양을 결정한 엄마들이 아이에게 편지를 쓰도록 하고 그 편지를 아이와 함께 보낸다. 다음은 애란원에서 입양을 결정한 한 미혼모의 편지이다.

■ Kara Rickmers

애란원
애란한가족네트워크

웹사이트 www.aeranwon.org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대동문길 138
이메일 aeranwon@chol.com



사랑하는 아가에게

애란원 입양모 한서운(가명, 만 16세)

아가야 안녕? 엄마가 너한테 지어준 이름은 수품 임(林), 빼어날 수(秀), 민첩할 민(敏)으로 임수민이란다. 재주가 뛰어나고 현명하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야. 엄마는 어리다고 하면 어린 나이에 우리 수민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어. 처음 초음파를 봤을 땐 어찌나 신기한지 내 뱃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했단다. 그렇지만 수민이가 거꾸로 있어서 큰 일이 날 수 있기에 매일 스트레칭도 해주며 과일도 많이 먹었단다. 엄마가 수민이를 임신했을 때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거의 매일 먹었지 뭐야. 우리 수민이도 까르보나라 파스타를 좋아할지 궁금하다! 태교도 열심히 하고 우리 수민이에게 계속 집중했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수민이도 엄마 배 열심히 차고 우리 서로가 엄청 노력했던 것 같아.

엄마가 수민이를 품은 지 36주 5일이 되었을 때, 수민이가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그 다음 날 양수가 터져서 바로 병원에 갔고 2시간동안 진통 끝에 2020년 5월 22일 5시 40분에 수민이가 태어났어. 진통 2시간이면 비교적 짧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괴롭고 아프더라. 하지만 그 엄청난 고통을 끝내고 너의 얼굴과 울음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엄청나게 괴롭던 고통이 싹 잊혀지고 정말 감동적이었어. 태어났을 당시에 너는 2.84kg으로 작게 태어나서 “잘 안 크면 어찌지?”라는 걱정을 하게 되었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라서 우리 수민이를 돌보는 게 미숙하고 서툴러 꽤 고생이었는데 수민이가 밥도 잘 먹고 대소변도 잘 보아서 고마웠어. 신생아여서 그런지 아니면 엄마를 닮아서 잠이 많은 건지 너무 오래 자서 걱정을 많이 했지만.. 이제 보니깐 엄마가 수민이 걱정을 엄청 많이 했네.

우리 수민이가 너무너무 예뻐서 새벽마다 밥 달라고 울어도 기분 좋게 분유도 타고, 엄마는 수민이 덕분에 새로운 경험을 정말 많이 하고 많이 배웠어. 하루하루 크는 게 눈에 보이는 만큼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흘렀어. 수민이와 이별하기 싫어서 하루가 빨리 흐를 걸까? 엄마는 우리 수민이 사진도 엄청 찍었어. 폴라로이드 필름을 엄청 아꼈었는데 수민이에게 쓰는 건 전혀 아깝지가 않더라. 엄마랑 수민이랑 이별하고 난 후에 수민이가 새로운 가정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도 엄마는 평생 수민이를 기억할거야. 수민이 얼굴이 엄마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을 걸? 눈, 코, 입, 눈썹 등등 전부 엄마를 닮았어. 쌍꺼풀이 속쌍인듯 겹쌍이며 짙은인 것도 코가 복코인 것도, 입술 산이 분명한 것도 눈썹 모양까지 엄마랑 완전 판박이란다. 네가 손가락 발가락이 긴 것도 다 엄마의 유전이야. 성격까지 엄마를 닮았으면 정이 엄청 많을 텐데 성격은 엄마를 굳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수민아. 엄마는 수민이가 싫어서 이별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수민이는 행복한 가정에서 불행하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어. 수민이가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 만약 우리 수민이가 엄마를 보고 싶다면 찾아와도 좋아. 엄마는 기다릴게. 엄마는 수민이가 태어난 지 11일째가 되는 날에 수민이랑 이별해. 엄마가 또 눈물이 많아서 매일 매일 우는데 우리 수민이는 엄마가 슬픈 걸 아는지 같이 울어주네. 부디 제발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래. 엄마는 수민이를 정말 사랑했고,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 할거야.

수민아, 엄마가 정말 사랑하고 많이 미안해.

2020. 5. 31. 수민이가 10일 짜 된 날
수민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애란한 가족네트워크 뉴스레터 2020년 12월호에서 발췌한 내용임]



라신 코레안

RACINES CORÉENNES

프랑스 파리

언제 그리고 왜 이 단체를 설립했나요?

지난 1995년 프랑스 한인입양인 여러명이 설립했습니다. 창단멤버인올레인 켈리에, 마리 프란빌, 기욤 굴란, 그리고 카린 그리졸은 한국과 입양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유럽 내에서 잘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Racines coréennes는 한국문화에 대해 알아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공식 단체를 설립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로 입양된 한인 입양인은 최소 1만 2000여명입니다. 세계에서 한인 입양인 수가 두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저희가 모여 단체를 만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Racines에서 본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사회의 일원이며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전에 저는 이 단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회원들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Racines의 역사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00년대 Racines coréennes은 프랑스 정부에 국제 입양에 대해 조언하는 공식 컨설팅 단체의 일부였습니다. 초기 해외 입양 세대였던 저희는 외국에서 입양돼 프랑스 국민으로서 살아온 경험을 생생히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활동을 활발히 하는 회원들이 130명 정도 있고 그 가족들을(약 200명) 포함하면 더 많습니다. 대략 1만 2000여 명의 프랑스 입양

인들 중 많은 이들이 잠시나마 저희 단체에 몸을 담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아이들의 세대가 오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Racines coréennes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스로가 자랑스럽고, 우리 문화와 뿌리를 어린이, 청소년, 혹은 성인이 된 저희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한국이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인기 있는 나라가 되어서 많은 이들이 저희 단체에 가입했습니다. 이들은 저희 단체와 한국 문화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단체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는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한 해 동안 어떤 행사를 주최하나요?

많은 행사를 주최합니다. 일년에 두 번 큰 이상 행사를 열고, 매달 프랑스식 한식당에서 점심 식사 행사도 엽니다. 이는 저희 단체 회원들과 저희에게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프랑스 중심부에서 맛있는 한식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장성했고, 모든 가족들과 이 시간을 나누는 건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모든 한인 입양인들이 아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있는 이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다른 한인 입양인들의 자녀들과 서로가 친구가 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즐거워합니다.

프랑스 각 지역에 있는 저희 대표단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매년 프랑스 내에 있는 다른 한국 단체들과 함께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저희는 KOWIN (프랑스 한인 여성 단체), 그리고 ARCF, 프랑스 한국인 단체와 협력 관계입니다. 한국 문화에 관심을 보이는 다른 단체들과도 가깝습니다. 서울에 위치한 여행사인 Corée Voyages와 함께 일하며 연 2회 회원들과 그 가족들의 한국 방문을 돕습니다. 입양인 회원들에게 이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는 회원들의 경우 이 여정 중에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다른 입양인들과 함께 나누며 줄일 수 있습니다.



크리스텔이 그린 송년회 포스터

회원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일부 회원들이 가족 찾기를 위해 저희 단체에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자가격리 때문에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정 절차에 관한 뉴스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관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서로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해는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온라인 상으로 만날 수 있는 많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국어 수업, 프랑스 내 수 많은 회원과 입양인 만나기, 그리고 휴식을 위한 요가 시간 등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이야기에 대해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 여름 거리 두기가 완화됐을 때 야외에서 피크닉을 하고 월레 점심식사 행사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역 대표단과 함께 프랑스 곳곳에서도 행사를 진행합니다. 현재까지 세 개가 있으며,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는 다양한 프랑스 지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회장은 각기 다른 도시(툴루즈, 오를레앙, 그리고 리옹)의 대표단을 모두 만나려고 합니다.

스트라스부르와 보르도에도 대표단을 만드려는 계획이 있으며, 계속 그 규모를 넓히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2세대,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태어났음이 자랑스럽고, 한국은 현재 전 세계에서 매우 유명하고 인기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 답변: Christelle Pécourt



Racines coréennes
French Association of Adoptees from Korea

웹사이트 www.racinescoreennes.org
주소 100 boulevard Masséna, 75013 Paris, France
이메일 contact@racinescoreennes.org

International Korean Adoptees Association

웹사이트 www.ikaa.org
이메일 info@ikaa.org

*Racines coréennes는 IKAA 회원 단체입니다.



크리스텔 페쿠

CHRISTELLE PÉCOUT

프랑스 파리의 44세 만화 작가인 크리스텔 페쿠는 Racines coréennes 이사회의 사무총장입니다. 지난 2015년 정체성과 관련해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그녀는 케이팝에 대한 만화책을 발행했고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 다양한 분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 밤 다른 입양인들과의 줌 미팅에서 고빈도거래(웃음)를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요! 저는 잠수함 영화와 우주 탐험, 락 음악 축제, 미술관, 대도시에서의 산책, 그리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그립습니다!

입양됐다는 사실이 당신의 유년시절에 어떤 영향을 주었 나요?

프랑스에서 남들과 다른, 아시안으로서, 백인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자란 마르세유에는 동양인들이 많이 없었지만,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는 크게 인종차별을 당하지는 않았습니 다. 동양계인 프랑스 여성으로서 가끔은 매우 고통스럽지만, 여동생과 사촌들도 한국에서 온 입양인이기 때문에 외롭지는 않았습니 다. 하지만 동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는 않았습니 다.

자라면서 한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몰랐습니 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지만, 얼마전까지도 그 작은 나라의 모든 것에 대해 무시했습니 다. 관심을 가지게 된 건 2015년인 최근입니 다. 이제 이 유대는 매우 강하지만 저는 이를 개인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며 키웠습니 다. 저는 이것을 “나의 아시아튜드” 라고 부릅니 다.

성인이 되고 나서 입양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게 된 건 언제부터 인가요? 그런 활동이 어떤 도움이 되었 나요?

지난 2015년 케이팝 책을 발행한 해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 다. 프랑스가 어려움을 겪었던 해였습니 다. 프랑스인들에게, 특히 파리 거주민들에게 샤를리엠프도 등 사건은 악몽이었습니 다. 하지만 저에게는 르네상스와 같은 해였습니 다. 저는 동양인 페미니스트로, 작가로, 그리고 Racines coréennes의 입양인으로 수 많은 활동을 했습니 다. 그 때부터 저는 이사회 의 일원으로서 봉사하기 시작했습니 다.



무슨 일을 하시나요? 현재의 분야에서 어떻게 일하게 됐나요?

저는 지난 2001년부터 만화 작가로 일했고, 최소 10권의 책을 발행했습니 다. 저는 프랑스 유수의 예술 학교들에서 패션 디자인과 만화를 배웠습니 다. 저는 언제나 그림 그리기와 글 쓰기에 능했습니 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창조하기 입니 다. 저는 파트타임으로 미술 교사로도 일하고 있으며, 이 일을 사랑합니 다. 제 경험과 예술을 어린 학생들과 나누는 것은 매우 즐거운 일입니 다.

입양인으로서의 경험이 일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 나요?

저는 단시간에 프리랜서 예술가가 돼서 괜찮았지만, 입양인으로서 스스로를 충분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제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 다. 자신감이 부족했거든요.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나요? 처음 갔을 때 어땠나요?

2015년에 처음으로 방문했습니 다. 저는 일본, 홍콩, 그리고 중국에는 가 봤지만, 한국에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 다. 이전 때가 됐다고 생각했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 다. 이전에 방문했던 모든 여행은 제 한국 여행을 위한 준비처럼 느껴졌습니 다. 저는 한국을 사랑합니 다. 저는 페니미스트로서, 한국에서 다루지는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에서 행복감을 느낍니 다. 지난 2015년 이후 한국을 두 번 방문했습니 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것은 2019년이었고, 다시 갈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 다.

■ 답변: Christelle Pécout *전문은 iam.goal.or.kr에 있습니



표지 아티스트 리아 바렛 (LIA BARRETT)

리아 바렛 (Lia Barrett)은 (문서에 기록된 생일은 3월 9일이지만) 1984년 2월 어느 날 전주에서 태어났다. 1985년 6월에 입양되어 노스캐롤라이나 주 채플 힐에서 자랐다. 2007년 뉴욕의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학사 학위 취득 후, 리아는 여행과 모험을 계속 추구해 왔다. 온두라스 로아탄 앞바다에서 수제 잠수함을 이용한 심해 작업에서부터 세계 기록을 보유한 프리다이버들을 촬영하기까지 리아는 바다 밑의 세상을 자신의 궁극적인 안식처로 받아들였다.

리아는 자신이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디자인하는 의류회사 프라노 어패럴의 공동창업자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다. 이 회사는 해양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뉴욕타임스 1면을 비롯해,

BBC, CNN, 타임, 아웃사이드, 오 매거진 (O Magazine), ESPN, 플레이보이, 더 타임스(영국), 남성 저널 (Men's Journal), 60미닛 등 수많은 신문과 잡지에 실렸다. 여러 수중 사진 심사 패널리스트로 참여하기도 했고, 다른 사진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기르고 발전시키도록 격려하는 하면서 큰 보람을 느낀다.

2018년 리아는 한국으로 돌아와 33년 만에 친생부모와 재회했다. 비록 만나지는 못했으나 여섯 명의 이복 형제(아버지, 어머니 쪽 각 3명)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www.liabarrettphotography.com/

